

초연결성 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 방향 모색

정하은(베이지교회/목사)

graty@naver.com

한글 초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각 분야와 영역의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공유되는 초연결성의 시대이다. 초연결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세속, 교회와 세상, 영혼과 육체, 신앙과 삶, 인간과 자연 등 다양한 구분과 단절로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단절로 인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연결성 시대의 특성과 초연결성의 핵심인 연대성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연대성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과 자연과 세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연결성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바 첫째,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인식하되 절대적 가치를 따를 것 둘째, 페리코레시스적 존재양식을 가진 호모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이해를 할 것 셋째, 연대적 관계성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주제어 》

초연결성 사회, 연대, 호모커넥투스, 페리코레시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I. 들어가는 말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공동체 중심사회에서 개인중심 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지평과 모습들이 쉽 없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과학기술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고, 어떤 이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와 포스트 디지털 시대, 어떤 이들은 전 세계인의 삶을 뒤흔든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문화, 개인과 자연, 문화와 문화, 문화와 세대가 연결되고 과학과 의학, 공학과 철학,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되고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성이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를 이루며 소셜 미디어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유대를 과거보다 좀 더 긴밀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초연결사회 속에서 교회는 과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회가 세상과 문화와 예술과 연결되고, 신앙이 세상과 삶에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에 더 이상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인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해 보아야 한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지만 다음 세대라 불리는 청소년-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 재미나 흥미 없음, 목회자에 대한 실망,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 헌금과 교회건축에 대한 부담, 개인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청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신앙과 세상이 연결

되지 않는다는 ‘단절’ 또는 분리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은혜의 이야기, 교회 문을 나오면 신앙과 분리되는 세상의 삶과 문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양식으로는 세상에서 견디기 어려운 삶이 존재하기에 청소년-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는 고뇌하는 이들을 품지도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미디어 등과 같은 삶의 다양한 분야들을 그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고 세상과 신앙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앙만 강조한다. 교회만이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배타성을 좋은 신앙이라 착각하고 성역(聖域)화 함으로 세상과 더욱 단절되고 분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문화와 경제, 정치와 사회, 예술과 미디어, 철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어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적 삶을 녹여 세상을 이끌고 인도할 신앙적 지도자들을 길러낼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초연결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초연결사회의 핵심인 연대성과 연대성의 신학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연대성을 기반으로 현실의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초연결성 사회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화(localization)를 뛰어넘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되었다. 즉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나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이란 개념이 현실화 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역과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란 개념이 생겼다(김재영, 2021, 10-11). 그러나 이제는 지

리적 공간을 벗어나 지역과 문화, 문화와 세대, 사람과 사물 사이에 경계가 사라지고 간극이 소멸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력한 특징이다. 무인 운송수단이나 3D프린팅, 첨단 로봇 공학 그리고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물리학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이나 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 게놈 시퀀싱 작업이나 유전자 조작 그리고 뇌과학,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기술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즉 과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 혹은 전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다(Schwab, 2016, 25). 더 나아가 이러한 융합의 특성은 인간과 사물, 뇌와 컴퓨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라는 경계를 허물고 각 프로세스의 경계와 각 영역이 가진 경계를 뛰어넘어 사물과 공간이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고 있다(Schwab, 2016, 105).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분야와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융합시키고 연결시키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사람과 사물, 과학과 의학, 사물과 미디어 등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초연결성의 특징을 가진 사회를 초연결성의 시대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초연결사회

초연결사회는 기술혁명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은 농경사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에서 기계식 생산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1차 산업혁명과 전기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 산업시스템을 변화시킨 2차 산업혁명은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화시대의 문을 연 3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바탕인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보다 한층 발전된 디지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주축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디지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의 발달로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네트워크 시스템은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자유와 힘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정보나 지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힘과 권력에 의해 차별적으로 주어졌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접속해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열게 되었고, 정보화시대는 디지털, AI, 사물인터넷의 물결을 타고 지식과 정보, 사람과 지역, 과학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시키는 초연결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는 곧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소통을 가능케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기반을 둔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 통신장비, 단말기 등과 같은 사물은 2013년 약 100억 개에서 2020년 약 500억 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개체, 사람, 사물 프로세스, 데이터 등과 연결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생산/교환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김민형, 2015, 216). 결국 디지털,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가진 초연결성은 물질이나 서비스, 지역, 공간이라는 특수성에 갇히지 않고 정보, 지식,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미디어 등과 같은 범주와 연결·확대·발전되어 경계나 영역을 허물게 되었다.

2. 초연결사회의 특성

초연결사회와 산업사회의 특성은 극명한 차이가 있으나 요약하면 두 가지이다. 첫째, 산업사회는 현실 공간에 기초를 두지만, 초연결사회는 가상공간(cyber space)과 현실 공간(real space)이 혼합된 특성을 갖는다. 산업사회가 물질이나 정보,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초연결사회는 공적 소유, 즉 공유경제 시스템이 두드러진다. 산업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소유가 상품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초연결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정보나 지식이 상품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박지웅, 2018, 287-289). 즉 초연결사회는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틀과 시스템 자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둘째, 초연결성이 가진 연결성 또는 관계성이다. 인간 자체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인간과의 관계든 사회적 역할로서의 관계든 인간은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가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인간관계의 주체는 인간이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상대나 사물을 판단하고 그 판단 하에 관계의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게 그 관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초연결성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물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실행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로 발전하였다. 이는 사물이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 매개수단이 아님을 의미한다. 초연결사회는 인간과 사물 혹은 주체와 객체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인간과 기계, 인간과 사물,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통합적 구조를 가지며 관계에 있어서도 단일의 주체가 되는 중심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박지웅, 2018, 280). 세계 경제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주체가 되어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미 자본은 서로의 물가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은 한 지역, 한 국가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형성된다. 또한 자급자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거대한 거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국경과 자본과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관계성을 가짐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초연결사회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사물, 데이터와 프로세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 등 인간의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연결되는 융합과 동시에 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과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 초연결성은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를 초월하여 총체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속성을 가지고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관계를 형성하는 초연결성은 나와 전혀 다른 객체의 고유한 성질과 특성을 받아들이거나 인정, 수용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다.

Ⅲ. 초연결사회의 연대성(solidarity)

사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역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인간과 사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과학과 의학, 기술과 산업 등 모든 것이 융합되어 연결되는 초연결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교회는 전통에 갇혀있었다. 교회는 성과 속, 영혼과 육체,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 부와 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초연결’사회에서는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야 하고 신앙과 정치, 경제, 사회, 의학, 문학, 인문학 등 인간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이 이 모든 것과 단절되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신앙도 이 모든 삶에 연결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삶을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체육, 군,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연결되고 연대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알고 세상의 청지기가 되며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연결사회에서 연대성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1. 연대의 일반적 의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the will to live together)를 갖는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이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

가 바로 연대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누군가와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연대하며 살아간다. 연대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연대성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연대(solidarity; solidarite)는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olidus’에서 유래했다. 연대의 유래는 로마의 특수한 형태의 법적 채무형태를 일컫는 ‘연대채무(obligatio in solidum)’에서 나왔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채무를 공동으로 변상할 의무를 지니며 동시에 공동체 전체는 개별 구성원의 채무에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말한다(Brunckhorst, 2015, 3). 이러한 ‘공동 책임’의 특성을 가진 연대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 이후 확장되어 법률적 책임의 의미를 넘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연대란(solidarity)은 사람들의 상호 결속과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목되어 온 개념이다. 사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초고속 변화의 시대에 연대성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 초연결적인 인류의 일치에 관한 새로운 모델로서 도덕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에서 연대성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자인 에밀 뒤르켐은 연대를 소극적 연대와 적극적 연대로 구분하고, 적극적 연대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하여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소극적 연대와 적극적 연대

소극적 연대는 개인과 개인 사이 즉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타인과 타협이나 상호 양보를 통해 확정, 소유하는 것으로 소극적 연대는 모든 연대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도 있다. 사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타인과 타협이나 협의, 양보와 인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Durkeim, 2012,

177-183). 적극적 연대는 어떠한 매개체 없이도 개인과 사회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신념이나 인식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개인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과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사회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연대성을 갖게 해준다(Durkeim, 2012, 191-193).

2)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기계적 연대(mechanical-solidarity)는 동질성에 의한 연대로서,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하고 그 집단이 가진 특성과 규율에 순응하며 그 집단이 가진 생각과 기준에 동화되는 것이다. 즉 집합의식이 각 사람이 가진 의식을 지배하고 그 의식들이 일치할 때 기계적 연대성이 극대화된다. 이때 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집단이 드러난다. 그러나 유기적 연대(organic-solidarity)는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큰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한 일부이면서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하기에 개개인의 생각과 특성을 살리고 계발하면서 그 발전이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대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기적 연대이다(Durkeim, 2012, 193-199).

2. 연대의 신학적 의미

존 웨슬리는 “우주적 구원”(General Deliverance) 설교를 통해 신앙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차원이라 했다(Runyon, 1987, 8-9).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타인, 나와 자연, 나와 세상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며 그 관계성에 대한 책임, 즉 연대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연대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몰

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으로 이야기한다. 삼위일체 각 위격들의 구분되는 인격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흔히 사회적 삼위일체론(social doctrine of the Trinity)이다. 일치성은 상호 간에 서로 너무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행위와 '주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영향을 끼치는 인격들의 교제와 같은 것으로 묘사된다. 신적 인격들은 상호적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세 신적 인격의 하나 됨은 또한 고대 개념인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에 의해 묘사된다. 이것은 '상호침투'와 '상호내주', '상호보완'과 '상호교류'를 의미한다. 이 용어의 어원적 뿌리 가운데 하나는 "춤을 추다"인데, 페리코레시스는 삼위일체 세 신적 인격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상호적 관계들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춤을 추는 행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신적 인격의 일치성을 묘사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식이다. 그들은 서로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며, 상호적인 사랑의 춤 안에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한다(정하은, 2022, 93-94).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역동적이고 관계적 이해는 각 신적 인격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각각 신적인 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Osmer, 2007, 398-403). 즉 몰트만은 하나님이 각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고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태, 즉 상호내주, 상호침투, 상호보완, 상호교류를 통한 하나 됨, 연대의 완벽한 모델이라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 속에서 신앙을 갖는 인간이 타인과의 연대, 자연과의 연대, 세상과의 연대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타인과의 연대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가족과 친지, 교사, 친구, 선후배 등의 관계로 정체성이 형성되며 연대적 관계를 통해 인간이 되어 간다. 즉 인간은 타인과 관계없이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기중심성, 권력의지, 배타성 등의 죄성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억압하며 착취함으로 관계성이 깨어진다. 타인 존중

과 이해로 선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더불어 연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마땅히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온다. 타인과 더불어 선한 관계를 맺어가는 연대성은 그들의 삶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나이, 성격, 성품, 인종, 성별, 가진 것의 많고 적음,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창1:27)라는 것을 인식하는 말씀에서 시작한다. 이에 대해 몰트만은 하나님나라 신앙을 갖게 되면 친구-적-사고가 극복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주체-객체의 분리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적 관계성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며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 살림이 불의와 폭력, 억압과 착취, 전쟁과 핍박,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 사회, 경제, 종교, 정치, 문화, 예술 등 인간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Moltmann, 2017, 415).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웃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며 상호성의 윤리, 인간의 도덕기준을 뛰어넘어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 권력과 직분으로 타인을 지배하거나 종속하는 관계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생(共生)의 관계로의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19절을 통해 선포한 자신의 사명선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표현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친교를 통해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진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개인의 미덕이나 도덕적·윤리적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이며 복음의 방향성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연대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앙적 삶의 태도이다. 이러한 연대와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차원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는 어떤 사회적 실천이나 구체적 차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의 절대적 윤리 기준이 아닌 ‘관계’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핵심적이며 중심이었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이웃, 즉 타인과의 관계였다. 타인에게 정의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가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김근주, 2012, 112-113).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그룹은 그리스도인은 평등하고 지역과 나이, 신분과 인종, 직분과 직업을 초월하여 존중과 배려가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고 말한다(Groome, 2014, 103).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신분이나 배경, 인종이나 나이, 직분이나 직업, 죄의 경중, 남녀에 구분 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경계를 세우고 구분하고 호불호와 유익에 따라 사랑하지 않고 조건 없이,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드러남으로 연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핵심 메시지이다.

2) 세상과의 연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나라의 구현이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증거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경험되어야 한다. 즉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게 할 의무가 있다. 교회가 세상과 경계와 벽을 허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드러내야 한다. 이는 곧 교회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연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어떤 특정 영역이나 지역, 단체나 기관과의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자체를 품고 세상과 연대하여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몰트만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나라가 아닌 하나님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한다(Moltmann, 2017, 166-167).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하나님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시작되어 완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기에 ‘선취’의 사건으로서 해방이 교회의 사명이 되며 교회 자체가 하나님나라의 선취된 공동체로 이해한다. 선취는 아직 성취는 아니지만 미래 속에 드러날 완성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전체의 한 조각으로서 성취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동시에 오고 있는 것을 미리 포착하는 것이다(Moltmann, 2017, 288-293). 그렇기에 교회는 아직 하나님나라가 아니지만 역사 안에서 하나님나라를 선취하며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Moltmann, 2017, 297). 교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발견되고 존재해야 하며 세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비로소 교회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김균진, 2014, 534).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과 연대해야 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나라의 ‘보편성’으로 이 보편성은 곧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과 연대해야 할 교회의 책임을 나타낸다. 교회는 모든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 즉 살림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Moltmann, 2011, 51-52). 하나님나라를 먼저 선취하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신앙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등과 같은 분야와 경계선을 가지고 분리 되어지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이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여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상호내주,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상호교류,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상호보완, 교회가 세상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호침투의 페리코레스시스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3) 자연과의 연대

성경에서 가장 오용된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28 말씀일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는 이 말씀을 인간이 땅을 다스릴 권리나 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여 자연을 이용, 착취,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즉 자연과 공생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닌 착취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자연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가꾸고 함께 살아갈 대상으로, 인간과 동등한 관계로 자연을 주셨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표현은 인간이 자연을 자기중심적 태도로 착취하거나 남용해도 된다는 허용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세계를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해도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정원범, 2022, 81). 더우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땅을 지배하라”는 명령을 신이 피조물에게 은총의 행위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재백, 2022, 156). 또한 하나님나라는 단순히 인간의 해방이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핍박, 전쟁과 기근,

폭력과 전쟁으로 인한 착취의 관계, 갑과 을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만 한정된 해방과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다”(시24:1)는 세상 만물, 땅과 바다, 그곳에 사는 피조물들과 그 가운데 사는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동일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나라의 살림, 구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동물과 식물, 그리고 환경 가운데 있는 억압이나 착취, 학대와 유린의 관계가 무너지고 동등하고 화평과 자유를 누리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을 뜻한다.

따라서 자연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시편19:1)는 다윗의 노래처럼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이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생명이 자연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삶을 유지, 지탱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동물들과 새들, 나무와 꽃, 풀의 생명력을 위해 샘을 만드셨고, 새를 위해 나무를 마련하셨고, 염소를 위해 산을 만드셨고, 인간을 위해 채소와 식물과 열매를 맺게 하셨다(시편 104편). 즉 자연생태계가 인간만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에 자연은 인간을 위한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고 유지시키며 생명력을 공급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더 나아가 자연은 하나님이 즐기시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신다. 빛을 창조하신 후(창1:14),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창1:10), 땅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후(창1:12),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후(창1:18), 바다짐승과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신 후(창

1:21),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신 후(창1:25)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창세기 1:31절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신다. 즉 물에 사는 생물과 땅에 사는 생물,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 낮과 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이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신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즐거워하셨다는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정원범, 2022, 82-84). 이는 인간이 자연 생태계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 다스리고 지배할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만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또한 몰트만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형성되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이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며 모든 피조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Moltmann, 2009, 148-154).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자신만의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 존재만으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는 것처럼 자연도 자연의 권리와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착취하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가꾸고 누리고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Moltmann, 2009, 160-162). 즉 산과 바다, 공기와 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이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연임을 기억할 때, 자연과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구조에서 연합과 공생이라는 연대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

IV. 연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인간의 문명은 연결과 유대를 통해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연결의 고도화, 초고도화를 통해 언어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촌락과 도시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켜왔다. 즉 인류 문명사는 연결과 유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초연결성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가진 경계 즉 거룩함과 세속, 목회자와 평신도, 영혼과 육체,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나라를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정원범, 2021, 75). 이를 위한 연결과 연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을 살펴보자.

1.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신앙교육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극혐’이다. 극혐이란 “정도가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함. 또는 그런 것”이라 정의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맞지 않아도, 조금만 불편해도 ‘극혐’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자주 사용될수록 분열이 심화된다. 남성 혐오의 남혐과 여성혐오의 여혐은 여자를 비하하는 ‘된장녀’와 남자를 비하하는 ‘한남’으로 남녀 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였고,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비꼬아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 외에도 분열과 갈등은 지역과 인종, 직분과 빈부, 성별과 지위 등 인간의 모든 문화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흠어짐을 면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혼란이 찾아왔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 및 연대성을 깨뜨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세상을 살아가

는 삶의 가치에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즉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상대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들의 가치이며 순위가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의 재물, 권력, 미모, 사람은 항상 변하는 상대적인 것들이기에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인식하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분별하도록 교육(롬12)할 때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공동체적 연대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2. 호모커넥투스(Homo Connectus)의 신앙적 인간이해 교육

삶 가운데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앙적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에 기초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상호교류, 상호보완, 상호침투, 상호교제라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처럼 인간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며 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인류는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관점 및 모든 분야에서 제기된 질문의 답을 이성인, 신앙인, 기술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고대 희랍에서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하며 생각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고, 기독교는 신앙하는 인간 즉 종교적인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며, 근대 이후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작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은 기술인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신앙인이 바로 기술인과 연결된다. 영성이 과학과 연결되고 과학이 영성과 상호 연결 되는데 이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인간과 우주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것과 과학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영역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즉 과학을 통한 영성으로의 접근과 영성을 통한 과학으로의 상호접근을 하는 것이다. 페리코레스시적 존재양식을 가진 인간이 초연결성 사회에서 분리되고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직면한 비극의 실상이다. 레너드 스위트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 하나님과 피조세계 등 복잡한 여러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고 말한다(Sweet, 2011, 35). 여기서 관계란 연대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상 사이의 연대로서 연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된다. 신앙적 인간은 본래 모든 만물과 연결되고 유대를 갖는다.

특히 초연결성과 초융합은 호모커넥투스(Homo Connectus)의 바탕이다. 호모커넥투스는 초연결된 존재로서 사람, 사물, 공간 등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사회의 인간을 의미한다(최민자, 2020, 7). 이는 인간과 세계의 초연결성이 단지 가시적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데로 이어지며, 하나와 전체는 불가분의 전체성 속에 이어져 있고, 전체로서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만물과 만물이 상호 연결된 초연결 세계에서 창조, 융합, 연결, 확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호모커넥투스다(최민자, 2020, 10). 호모커넥투스의 본질은 연결성이며, 이 연결성은 곧 소통이다. 하지만 호모커넥투스는 연결되어 있어도 기술적 존재성을 넘어 ‘내적 자아’로 연결되지 못하면 고독하다. 인간은 본래 호모커넥투스로서 이미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나 죄로 인해 분리되어 소통하지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본래 초연결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능하다. 소통에는 공감의 필요한데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함께 느끼고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함으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전위시키는 것을 공감이라 했고, 메리 고든(Mary Gordon)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능력”이라 정의했다(고용수, 2015, 13). 즉 서로 연결되고 연대성을 갖기 위한 소통의 핵심은 공감인데 자기만의 관점, 생각, 기준, 가치관 등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과 생각, 기준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태도로서 서로 연결하여 연대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눅 6:31)이며,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마 7:2). 이처럼 나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타인과 소통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로 공감하며 연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모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한 인식으로 타인을 지배, 착취, 억압하는 관계가 불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소통하는 공감의 사랑과 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향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며 함께 살아감으로 신앙적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김난예, 2009, 85).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토마스 그롬, 2003, 127). 따라서 호모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이해를 위한 핵심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자아정체성 및 타인과 소통하는 교육, 인간이 가진 존엄성과 평등성 및 가치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식을 위한 공동체 교육, 인간의 기준과 철학과 인문학에 기초한 가치관이 아닌 성경과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교육일 것이다.

3.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 교육

하나님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서 불의와 폭력, 전쟁과 억압, 분노와 갈등, 분열 등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존중, 화해와 연대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세상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현실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를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라 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신약성서의 '정의'는 평화가 임재한 상태의 총괄개념이다(Moltmann, 2017, 415).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렘 9:24)고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선포하였다(Albino, 2015, 91-99).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죄인들에 대한 차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봄으로 각자가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암5:24),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구분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는 경제와 문화, 정치와 사회 등 어느 곳에서도 실천되어야 하며 남녀노소, 지역과 인종, 직분과 지위, 세대와 문화 등과 관계 없이, 차별 없이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의의 부재는 우리 삶의 다양한 차별과 분열, 갈등과 분노를 사회, 경제, 종교, 정치, 예술, 체육, 미디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야기한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또한 사회구조적 부조리에 인한 억압이나 핍박, 빈곤을 만들어내

는 시스템, 사회적 불의가 결국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 의한 불의와 폭력은 끊임없이 갈등과 억압, 착취와 폭력을 양성한다(Moltmann, 2017, 415). 더 나아가 현대 우리가 가진 문화적 갈등, 인종차별과 성차별, 세대간·지역간의 갈등 등 다양한 분열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나라는 삶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실천으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

또한 평화는 인간을 둘러싼 동물과 식물, 물과 땅, 하늘과 바다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통해 자연세계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연대의 삶이다. 즉 인간중심적 사고가 해체되고 신앙에 기초하여 인간과 다른 모든 자연생태계를 동료 피조물로 이해함으로 종속관계나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생명을 장려하고 지탱하고 보완하는 상호 공존의 관계로 살아감을 의미한다(Moltmann, 2017, 260-280). 이는 개인의 육체적·심리적 평화, 인간관계에서의 평화, 인간과 공동체 사이에서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 인간과 세상과의 평화라는 총체적인 것이다. 또 인간의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범우주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평화를 이루어가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합당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맺도록 요청한다. 이에 대해 그룹은 예수의 구원은 '정의로 분열과 갈등, 폭력과 억압, 착취와 핍박의 모든 관계를 해방시키는 구원'이라고 말한다(Groome, 2014, 103). 즉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나라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사귀 속에서 연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들 사이에서의 평화,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평화는 개인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모든 객체들이 연합하고 연대하는 관계적 상태이다(Moltmann, 2017, 207-211). 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전쟁이나 폭력, 다툼이나 갈등, 분

열 등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이나 초조함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의미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앙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유, 평등과 연대라는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라면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이다. 또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연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 편만한 분노와 갈등, 분열과 대립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정의와 평화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사회는 가상과 현실의 공간이 혼합되고 모든 것이 융복합 될 뿐 아니라 초연결적 특징을 지닌다. 초연결성 사회의 핵심은 연대성인데 이에 대한 신학적 원리로 타인과의 연대, 세상과의 연대, 자연과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연대가 아닌 분열의 시대이다.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세대의 차이, 경험의 차이, 가진 것의 차이, 직업과 직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지역의 차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한다. 이러한 편 가르기와 갈등은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고부 간, 나라 간 등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표현되고, 이러한 표현은 다시 갈등과 대립, 분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유대와 연대를 배우는 것이다. 막힌 담을 허시고, 믿음 안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분노를 회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연대해야 한다. 이 연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 인간과 세상, 인간과 문화 등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연결성의 시대 기독교교육의 방향은 초연결 사회의 흐름을 인식하되 이 시대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 가치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초연결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페리코레시스적 존재양식을 가진 인간이 함께 더불어 연대하며 살 수 있도록 호모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자아의 신앙정체성,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 연대의식을 위한 공동체,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하나님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핵심이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사귄으로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이해하고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상, 인간과 모든 생태계가 건강한 관계성을 회복하고 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연대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갈 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용수 (2015).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형성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2, 13-46.
- [Ko, Y. S. (2015).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in Building a Faith Community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13-46.]
- 고재백 외 15인 (편) (2022).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서울: 새물결 플러스.
- [Ko, J. B. (2022). *Challeng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and the Church's Response*. Seoul: Holywaveplus.]
- 김균진 (2014). **현대 신학사상: 20세기 현대신학자들의 삶과 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 [Kim, G. J. (2014). *20th Century Theology*. Seoul: Holywaveplus.]
- 김근주 외 4인 (편) (2012).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서울: 흥성사.
- [Kim, G. J. (2012).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김난예 (2009).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0, 85-111.
- [Kim, N. Y. (2009). Education on How to Live Togethe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0, 85-111.]
- 김민형 · 김현주 (2015). 사물인터넷과 초연결사회: 개념적 토대 및 기술인문학의 가능성. **한국영상문화학회**, 27, 215-238.
- [Kim, M. H., Kim, H. J. (2015). Internet of Things and hyper-connected society: Conceptual foundation and possibilities of the technique humanities. *Korean Association For Visual Culture*, 27, 215-238.]
- 김재영 (2021). 초연결성은 어떻게 지역성과 만나나?: 당근마켓 사례를 통한 탐색적 시론. **한국언론정보학보**, 108, 7-29.
- [Kim, J. Y. (2021). How Does Hyper-connectivity Meet Locality? : Exploratory

Study on the Case of Dangeun Market,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108, 7-29.]

박지웅 (2018). 초연결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기원과 성격. **사회경제평론**, 57, 271-305.

[Park, J. W. (2018),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57, 271-305.]

정원범 (2021). **세상 속 하나님나라 공동체**. 서울: 대장간.

[Chung, W. B. (2021). *In the world, the community of God*. Seoul: Daejanggan.]

정원범 (2022). **기후위기와 지구윤리**. 서울: 대장간

[Chung, W. B. (2022), *Climate Crisis and Earth Ethics*. Seoul: Daejanggan.]

정하은 (2022).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회복, 연대, 변형의 기독교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Chung, H. E. (2022). Christian Education of Restoration and Solidarity for the Re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Ph.D's thesis at the Presbyter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최민자 (2020). **호모넥티브투스 초연결 세계와 신인류의 연금술적 공생**. 서울: 모시는 사람들.

[Choi, M. J. (2020). *Homo Connectus*. Seoul: Mosinsaram.]

Barrera, A. (2015). *Biblical Economic Ethics*. New York: Lexington Books.

Durkheim, E. (2012). **사회분업론**. 민문홍 역. 서울: 아카넷.

[Durkheim, E. (2012).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Min, M. H, Trans.). Seoul: Acanet.]

Groome, T. H. (2003).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Groome, T. H. (2003).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Lee, K. M, Trans.). Seoul: Presbyterian of Korea Publish.]

Groome, T. H. (2014). **신앙은 지속될 수 있는가**. 조영관 외.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Groome, T. H. (2003). *Will There be Faith?*, (Cho, Y. G, Tran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blish.]
- Brunkhorst, H. (2005). *Solidarity: From Civic Friendship to a Global Legal Community*. (Jeffrey Flynn, Trans.). The MIT Press,
- Moltmann, J. (2009).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 [Moltmann, J. (2009). *Gott im Progekt der modernen Welt*, (Gwak, M. S. Trans.). Seoul: Dongyun]
- Moltmann, J. (2011).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광혜원 역. 서울: 21세기교회와 신학포럼.
- [Moltmann, J. (2011). *Sein Name ist Gerechtigkeit*. (Gwak, H. W, Trans.). Seoul: 21century' church and Forum of Theology.]
- Moltmann, J. (2017).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2017).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Lee, S. K, Trans.). Seoul: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Moltmann, J. (2017). **희망의 윤리**. 광혜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2017). *Ethik der Hoffnung*, (Gwak, H. W, Trans.), Seoul: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Moltmann, J. (2017). **희망의 신학**.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2017). *Theologie der Hoffnung*. (Lee, S. K, Trans.). Seoul: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Schwab, K.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메가스터디북스.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ng, K. J, Trans.). Seoul: Megastudybooks.]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hyper connectivity Society

Ha Eun Chung

Patsor, Basic Community Church

The era we are living in is an era of hyperconnectivity where boundaries and limitations of each field and domain disappear and organically converge and share with each other. Christians living in the age of hyperconnectivity are losing their direction of life due to various divisions and severances, such as holiness and secularity, church and world, soul and body, faith and life, and humans and nature. However, in a hyperconnect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break free from division and conflict caused by disconnection, and realize the kingdom of God through connection and solidarity between humans, nature, and the world.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of hyperconnectivity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which is the core of hyperconnectivity. The theological meaning of solidarity was examined in terms of humans, nature, and the world, an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hyperconnectivity was sought. It can be summarized as having a religiou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of Homoconnectus with a perichoretic mode of existence. Third, education on the kingdom of justice and peace where we can live together in a solidarity relationship can be summarized.

《 **Keywords** 》

Hyper-Connected Society, Solidarity, Perichoresis, Homoconnectus, Human

Understanding, God's Kingdom of Justice and Peace

- 투고접수일 : 2022년 9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29일